

# 신춘문예를 통해 바라보는 90년대 한국 문단의 경향성 연구\*

- 1990년대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을 중심으로

김 소 루\*\*

## 요약

오늘날 문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990년대 문학에 관한 연구는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오늘날 우리가 의미화하고 있는 '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과연 당대 문학장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유되었는가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명명한 '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실은 2000년대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생성된 '기대'가 아닌가라는 물음과 맞닿는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도에서 1999년도에 이르는 신춘문예 소설 부문의 당선작과 그에 관한 심사평을 중심으로, 당시 문단이 추구했던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신춘문예를 주목하는 이유는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신춘문예가 한국 문단 내부에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등용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신춘문예 당선작들은 당대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한국문단이 추구했던 경향성은 물론, 오늘날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1990년대의 역사화 4-1990년대 문학의 비평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2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2022년 12월 10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대우교수

주제어: 1990년대, 신춘문예, 소설, 심사평, 내면성, 여성문학, 워드 프로세서, 세대

목차

1. 들어가며
2. 문학의 새로움과 문학적 정통성
3. 여성 응모자의 증가와 여성 비평가의 부재
4.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기성 문단의 보수성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어제’를 회상하고 ‘내일’을 꿈꾸며 채워진다. 이때 지나간 시간을 주목하는 것은 결국 어제와 다른 내일에 관한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문학계에서 1990년대 문학을 조명하는 이유는 오늘날 문학이 마주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함이자, 보다 새로운 문학의 내일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1990년대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가 당대 문학 비평의 장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거나, 당시 발표된 문학 작품들을 재해석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의미화하고 있는 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과연 당대 문학장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유되었는가에 관해 탐색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는 우리가 명명한 1990년대식 문학의 가치가 실은 2000년대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생성된 ‘기대’가 아닌가라는 물음과 맞닿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0년도에서 1999년도에 해당하는 신춘문예 당선작과 그에 관한 심사평을 중심으

로, 당시 문단이 추구했던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때 신춘문예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문단 내부에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등용문으로서의 신춘문예가 갖는 위상 때문이다. 물론 ‘신춘문예’가 1990년대 한국문단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신춘문예가 지닌 공정성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예지를 통해 신설된 신인문학상 공모전, 무엇보다 활자가 아닌 영상이 주류 문화로 급부상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 문학이 마주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도 신춘문예 당선 작품집 말미에 실린 기자들의 ‘좌담회’에서는 ‘신춘문예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1999년도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기획 평론에서도 기존의 신춘문예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당대 문학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춘문예의 문학적 가치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학에 다가설 수 있으며, “신춘문예가 전국을 문학 열기로 가득차게”<sup>1)</sup>한다는 1990년도 신춘문예 후일담 속에서 언급된 ‘확신’을 시작으로, 1999년도 당선 작품집에서도 신춘문예는 젊은 문학 지망자들의 열정을 뒷받침하는 축제의 장이자, 문학 교육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1990년대 문학의 기조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는 어떠할까? 중앙일보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2000년도 이후로 신춘문예를 폐지했고, 여타의 주요 문학상들에 관한 폐지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MZ 세대에게 소설은 웹소설로 먼저 연

1) 「좌담회: 신춘문예를 말하다」, 『90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0, 455면.

2) 정호용, 「기회 평론: 신춘문예에 대한 몇 가지 생각」, 『99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9, 504-505면.

결되고, 스토리헬퍼류의 프로그램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챗GPT를 통한 글쓰기의 일반화는 과연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문학의 위기를 우려하던 1990년대야말로 문학이 누릴 수 있던 마지막 전성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신춘문에 심사위원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당대 한국 문단을 구성하던 주류 세력이라는 점에서, 신인 작가 선정을 통해 당시 문단이 추구했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대 문단이 1990년대 문학에 걸었던 기대와 가치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를 통해서는 다수의 응모작에서 발견되는 공통향을 바탕으로, 1990년대 문학이 지닌 하나의 경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문학의 현 주수와 문학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크게 김한식<sup>3)</sup>과 임원식<sup>4)</sup>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김한식은 199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신춘문에 당선작을 중심으로 사회작·존재론작·일상작·풍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주제별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제재 면에서도 가족·일상·직업·관념·미래·해외로 구분하고, 신춘문에 당선작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존재에 대한 성찰과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가 90년대적이라고 지칭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 신춘문에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원식의 경우는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르는 소설 당선작의 경향성을 김한식이 전개했던 방식과

---

3) 김한식의 논문인 「90년대 신춘문에 당선 소설의 경향」(『현대문학의 경험과 형상: 김한식 평론집』, 새미, 2002.)에서는 경향, 동아, 서운, 조선, 중앙, 한국 일보의 당선작을 분석하고 있다.

4) 임원식의 논문인 「1990년대 신춘문에 당선소설의 성향 분석」(『인문학연구』 제28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에서는 김한식이 분석한 신문사 외에 문화일보와 세계일보를 추가하고 있다.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9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내용이 추가된 것과 1990년대 당선된 작가들이 당선 이후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무엇보다 김한식의 논의에서 지적되는 ‘작품 분류 기준의 모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보여준 작품의 경향을 이념적·인생론적·세태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 스스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본격문학일수록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sup>5)</sup>다는 점에서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소설에 그려진 배경을 역사적·개인적·사회적·특수상황의 배경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나, 형태에 따라 귀향형·심리묘사형·우화형·고발형·이야기체의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1990년대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나름의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자의 노력은 분명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신춘문예 당선작에 관한 내용적 차원의 분석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심사평을 중심으로 당대 문단에서 변화 지점이라고 주목한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당대 기성 문단에서 요구한 신인 문학의 기준을 탐구함으로써, 1990년대 문단에서 추구한 새로움에 관해 탐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때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신춘문예 당선(소설)집’에 수록된 경향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이다.<sup>6)</sup>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91·95·99년을 각각 초기·중기·후기로 구

5) 위의 논문, 61면.

6) 문화일보는 1990-1993년도에 미발간되었다는 점에서 1994년도 수상작부터 다루고 있으며, 스포츠서울을 통해 당선된 작품들은 추라 SF 스포츠 소설이라는 장르 문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추라 SF 스포츠 소설 등은 다른 여타의 신문사에서 선정된 작품들과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2023년 현재, SF 소설은 더 이상 장르문학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문학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주

분하고, 각 당선작들에서 발견되는 내용적 차원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심사평과 심사위원의 문제를 바탕으로 당대 문단의 한계를 조명하고, 4장에서는 심사현황 및 경위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1990년대 문학이 갖는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학의 새로움과 문학적 정통성

1990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주목되는 것은 단연 ‘탈이데올로기성’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어느 순간에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던 시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학은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은 오랜 시간 주류 이데올로기와의 연계 혹은 저항 속에서 창작되고 분석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문학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는, 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설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 주목하는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획득한다. 거대 담론에 반하는 미시 담론이 형성되고, 거대담론에 가려져 주목 받지 못한 개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서사들이 ‘폭발적’으로 창작되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소비된 까닭이다. 이에 신춘문에 당선작들 역시 대체로 거대 담론을 벗어나 내면으로 향하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1991년도 수상작품들은 1990년도 당선작들에서 주목되었던 광주 항쟁, 학생 운동, 노동자 운동 등의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주목 대신, 존

---

목받고 있는 장르 문학과 90년대 이전의 문학장에서 추구되었던 장르 문학과 연계성 혹은 차별점을 주목하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추후의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지역 신문에 해당하는 강원 광주 대구매일 대전 부산 전남 평화 일보 등의 신춘문에 당선작들은 매해 일관되게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심사평과 심사경위에 관한 총론에서는 지방 신문사에서 제시된 의견들도 수렴하고 있다.

재론적 탐색에 관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7개 신문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소설들은 하나 같이 거대 담론의 틀을 벗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 관해 시선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면 여전히 '분단'(김소진의 「취잡기」, 윤명제의 「개마고원」), '학생 운동'(김찬기의 「애기 소나무」), '전교조'(강금희의 「천국에서의 하루」, 최임순의 「외출」)와 같은 사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핵심은 사회 문제가 아닌 그 속에서 고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수상작의 경우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재한다.

서울신문 당선작인 윤이나의 「눈 오는 날」은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살림을 이끌어나가는 억척 아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굼직한 사회 문제를 대신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동아일보 당선작인 정윤우의 「아내의 행방불명에 관하여」에서도 여성으로서, 개인으로서 느끼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삼십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심사위원들은 정윤우의 소설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새로움에 대한 감각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쪽에 우리가 섰기 때문"이며 "그동안 우리 소설은 사회적 역사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생긴 짓눌린 삶을 부각시켜 승화시키는 쪽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른바 존재론적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는 1990년대의 초입에서 발견되는 문단의 '기대'가 바로 '새로움'에 기대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91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에서는 "80년대의 주도적 물결이었던 강력한 역사 모순의 인식과 이념성을 탈피, 개인의 실존과 낭

7) 김윤식·이문열, 「심사평: 새로움에 대한 감각 소중한 평가」, 『1991년 신춘문예 당선작 품집』, 예하, 1991. 138면.

만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이 늘어났고, 이것이 바로 “90년대 한국 문학의 새 전망을 짐칠”<sup>8)</sup> 수 있게 한다고 서술한다. 덧붙여 실제로 “지난해까지 강세를 보이던 운동권, 광주, 분단이 급격히 줄어들고, “중산층 내부에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중산층시각’의 응모작”<sup>9)</sup>이 많았다는 지적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 시각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윤이나와 정윤우의 작품은 물론, 조선일보의 최임순과 중앙일보의 강금희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다. 최임순의 「외출」은 출산 이후 일 년 만에 복직한 교사의 시선을 통해, 일 년 전과 후의 학교 공간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와 맞물린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조명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사라진 박 선생에 관한 문제로 모아진다. 그는 일제강점기 악질 형사였던 할아버지와 현직 검사인 아버지와 형이라는, 전형적인 민중 수탈자로 대를 잇고 있는 집안의 일원이라는 죄책감을 지닌 인물이다. 결국 정신병원을 향하게 된 박 선생을 떠올리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이념 갈등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타자에 대한 시선을 던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강금희의 「천국에서의 하루」는 전교조 문제로 교직을 떠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1990년도 세계일보 당선작이었던 강순금의 「뛰어넘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와 비슷하게 전교조인 남편과 그를 바라보는 아내라는 설정이지만, 1991년도 당선작인 강금희의 소설은 이념적 갈등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인의 존재론적 고뇌에 치중하고 있다. 고아로 양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배경,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꿈꾸었던 온전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무너짐, 스스로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선택 등 인물의 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역시 1990년도 당선작인 강순금의 소설 속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자처한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1991년도 당선작인 강금희의

8) 박선이, 「91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조선일보)」, 위의 책, 454면.

9) 위의 글, 455면.

소설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적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심사위원들은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사 교사 부부의 늪에 빠진 것 같은 일상생활이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엮여져 있어서 작가적 재능이 돋보이는 작품”<sup>10)</sup>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거대 담론에서 일상으로 문단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1991년도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세계일보 심사경위를 예로 들면 응모작의 소재가 다양해졌지만 그 가운데 노동현장이 압도적이었고, 1980년 광주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 등을 다룬 사회 고발 작품이 많았다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심을 통과한 8편의 작품 대부분도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경향일보에서 김소진과 경쟁을 이룬 후보작들 역시 광주 항쟁, 대학가의 운동권 문제, 철거민 딱지사건 등 사회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문학이 시대를 주목하고 반영하는 ‘교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아니 그러한 기대를 부여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찬기의 「애기 소나무」와 김소진의 「쥐잡기」가 바로 그러한 기대를 일정 면에서 충족시키고 있는 작품들이다. 김찬기 작품의 핵심 인물인 삼촌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미술학도인데 ‘반정부 화가’로 수배되어 기관들에게 쫓기는 신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삼촌의 민중운동이 초점이 아닌, 그를 바라보는 조카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다. 김소진의 「쥐잡기」 역시 영세 상점의 쥐잡기와 아버지 세대가 겪은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서사를 교차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역사적 사건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문학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당선작인 윤명제의 「개마고원」은 1991년도 당선

10) 김주영 송영 김치수, 「심사평: 참신한 소재의 작가적 재능 돋보여」, 위의 책, 305면.

작 가운데 가장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천오백 년 9월 2일이라는 미래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로, 캡슐이라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스템 아래 통제되고 관리되는 사회에서 나름의 금지곡을 듣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한국일보 심사위원들은 예심에서 넘어온 6편의 작품이 분단 광주 혹은 민중적 삶을 다루고 있으나 ‘하한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윤명제의 소설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1991년도 신춘문에 당선작을 통해 발견되는 분명한 경향성은 이전 연도에 비해 ‘개인’의 내면과 일상에 주목한 작품들,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들에 호의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동아일보 측에서는 “문단에서는 신춘문에 응모작의 이 같은 변화가 곧 90년대의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며 “90년대의 문학은 문학이 억압적인 상황에 저항하는 방편이었던 80년대의 틀을 벗어나 다양성과 대중성, 그리고 예술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하고, “이러한 변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학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일부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고유의 영역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sup>11)</sup> 또한 조선일보에서도 사 소설을 비롯한 거의 전부분에서 일정한 경향이나 주도적 특성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이를 최근 문단과 문화계에서 일고 있는 다원화 경향과 연결 지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1991년도 수상작품들에서 발견된 ‘새로움’에 대한 호의가 1990년대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며 무엇이라도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에 대한 요구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1995년도 소설부문 수상작들에 대해 정호웅은 대부분의 작품이 “지난 상처와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꿈꾸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음

11) 김승욱, 「91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동아일보)」, 위의 책, 449면.

을 지적하며, 그 이유가 “세기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황폐성을, 아니면 세계화라는 구호를 쫓아 국민소득 8,000불의, 낡은 세대는 차마 감당 못하는 풍요를 구가하는 전환기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소설의 새로운 변화 징후”를 드러낸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sup>12)</sup> 여기서 언급된 ‘새로운 소설의 징후’는 신춘문예 응모작을 중심으로 90년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거의 매해 “금년도 응모작들은 여러 측면에서 예년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sup>13)</sup>다는 식의 서술이 발견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년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란 무엇일까? 1995년도 수상작에서는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내면성’에 관한 심화로 모아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문학이 갖는 특수성으로는 단연 ‘내면으로의 침잠’을 손꼽을 수 있다. 이는 1990년대를 가로지르는 1995년도 신춘문예 수상작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수상작 대부분이 1인칭 초점화자로, 뚜렷한 줄거리 없이 내적인 상처와 존재론적 갈등에 관해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1991년도 수상작들을 통해 내면 문학의 ‘출발’을 짐작해본다면, 1995년도 수상작들에서는 내면 문학의 ‘심화’를 엿볼 수 있다. 이는 1995년도 신춘문예 응모작에 관한 심사위원의 의견이나 각 신문사별 후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작품의 무게 중심이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거대 서사가 뒤로 물러났고 개인과 그들의 사랑에 대한 서사가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 까닭이다.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이나 공장 등 ‘현장’ 중심의 운동권 이야기가 소설 응모작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그때의 운동권들이 사회로 진출한 뒤 겪어야 하는 좌절과 소외”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의견도 주목할 수 있다.<sup>14)</sup> 이에 관해 심사위원들

12) 정호웅, 「소설평 상처와 꿈」, 『1995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5, 414면.

13) 이문열 조남현, 「심사평 탐구정신의 결여」, 『1995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5, 126면.

14) 손정미, 「조선일보: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옮겨진 무게중심」, 위의 책, 437면.

은 개인의 삶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작가 지망생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으로의 침잠을 당대 기성문단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990년대 한국문단이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문학의 ‘위기’로 바라보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에 관한 답은 중앙일보 수상작인 장경식의 「거미여행」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거미여행」은 1960년대 발표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무진기행」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이라는 도시의 폭력성과 위로받고 싶지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고향의 문제가 발견되며, 주류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통해 내면적 상처와 존재론적 가치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는 「거미여행」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는 1990년대식 새로움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미 한국문단에 내재되어 있는 감수성의 한 줄기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후보작으로 거론되었던 김영하의 「거울에 대한 명상」에 관해 “전반부의 성애가 너무 가볍고 진한 점이 부담”<sup>15)</sup>스러웠다는 심사평과 연결해볼 수 있는데, 1990년대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방적인 성인식과 다소 노골적인 성애 묘사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일보 기자의 글을 살펴보면 70년대 생들의 소설에서 성을 소재로 한 대담한 성 묘사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30대로 구성된 예심 심사위원들과 50대 이상인 본심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각각 ‘참신하다’와 ‘가볍다’로 구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본심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장경식의 「거미여행」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움’이라고 명명한 1990년대식 문학의 특징이 기성 문인들에게는 ‘가능성’보다는 ‘우려’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남긴다.

15) 김원일 백낙창 최일남, 「심사평 소외지대의 끈끈한 삶의 확인」, 위의 책, 257면.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 문화일보 당선작인 김홍선의 「초하의 조사」이다. 해당 작품은 농촌에 사는 부모님의 모내기를 돕고자 서울에 살고 있는 화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처럼 고향집을 찾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고향집을 방문한 첫날 뒷집에 사는 아저씨가 돌아가시며 모내기 대신 상여를 메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 이웃 간의 정이 썩어 제시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김홍선의 작품이 농촌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차분하게 또한 리얼하게 그려 놓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린다. 이는 무게 중심이 사회문제에서 가족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나, 여전히 사회적 담론에 관한 작가의 문제의식에 큰 비중을 놓고 있는 기성 문단을 떠올리게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다수의 작품이 한국 사회가 마주한 거대 담론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경향일보의 당선작인 민선기의 「빙괴」는 1994년도 당선작들에서 주로 발견되었던 외국인, 이국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다. 국제 결혼으로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이 중심 화자로 등장하고, 독일에 입양된 서희라는 여성의 서사가 교차된다. 그러나 작품의 중심 서사는 스위스라는 공간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철저히 한국적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화자가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명도 갖지 못하고 제외되어 버린 상이용사’인 아버지의 존재가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서희의 서사는 과거 ‘아기수출 대국’이라고 지칭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70-80년대 한국의 해외입양 문제와 한국 사회의 빈곤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빙괴」는 해외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그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를 배치하고 있다. 1990년대의 새로움으로 제시된 가족 해체의 문제를 다루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귀환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빙괴」의 심사평으로 “서희의 분노가 발가벗은 언어로 시종하지 않고 마지막 결구 또한 어머니를 이해하는 쪽으

로 기운 사실에 우리는 안도한다”<sup>16)</sup>는 서술은 문학을 통해 출구를 희망하는 기성 문단의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정호웅은 「변태시대」와 「앵무새의 죽음에 관하여」가 지닌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두 작품에서 뚜렷한 출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선지자의 예언적 태도로 출구를 제시하곤 하는 우리 소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근본적 반성”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출구의 모색은 문학의 궁극적 존재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7)</sup> 더불어 문학 작품의 출구를 찾는 작업이 등단 ‘이후’에 주어진 수상 작가들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그러나 출구를 찾는 것은 남겨진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1990년대 문학이 갖는 특수성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심사평은 당시 기성 문단이 신인 작가들의 새로움을 가능성보다는 한계 쪽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밖에도 1990년대 전반의 신춘문예 수상작들에 관한 심사평이나 평론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작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내용과 형식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 작품보다는 ‘정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적인 작품을 구축한 작품들이 선정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그 예로 1999년도 경향일보 후보작으로 언급된 박형서의 「길의 한가운데에서」에 대해 “시중 억지와 무리한 작위적 스토리 전개로 지루한 난해 소설을 만들”<sup>18)</sup>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 문화일보 수상작인 은미희의 「다시 나는 새」는 ‘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 공부에 관한 ‘믿음을 제공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문학이 기대했던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실은 문학의

16) 이문구 최일남, 「심사평 사물의 진국에 다가서는 솜씨 돋보여」, 위의 책, 103면.

17) 정호웅, 「소설평 상처와 꿈」, 위의 책, 416면.

18) 김주영 신상웅, 「심사평: 문장의 힘과 매력」, 『1999 신춘문예 당선소설작품집』, 프레스21, 1999, 29면.

정통성에 대한 가치와 대립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대 문단이 지난 이러한 보수적 면모는 이어지는 여성 문학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 3. 여성 응모자의 증가와 여성 비평가의 부재

1990년대 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향성은 바로 여성문학의 대두이다. 1990년대 문학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여성 작가들의 출현이기 때문이다.<sup>19)</sup> 당시 문단 내부에서 많은 ‘여성’ 작가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들의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 인물들의 서사는 ‘여성’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되었다. 그 결과 여성 작가, 여성 서사, 여성 독자로 이어지는 구도는 1990년대 문단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 여성 작가들이 왜 이렇게 대거 등장하게 된 것일까? 그러나 이 질문은 역으로 ‘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여성 작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일까?’로 전환된다. 더불어 왜 이 시기에 여성 작가들의 존재가 주목되었고, 그들의 작품이 적극적으로 소비되었는지도 질문된다. 무엇보다 폄하되었던 여성 작가들의 문학이 어떤 맥락에서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인지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아래 억압받아온 여성들이 보여주는 저항의 서사가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세기말의 시대적 욕망과 맞닿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더해진다. 과연 당시 문단 내부에서도 여성 작가들을 통해 그러한 ‘새로움’을 ‘기대’했을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문학의 가능성이 과

19) 김영옥, 「90년대 한국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여성 작가 소설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9권, 상허학회, 2002, 93면.

연 당대에도 시대를 대표할 특수성으로 주목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199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에 관한 심사평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는 ‘여성 응모자’의 압도적인 증가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당선 작가들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다음은 1990년도에서 1999년도까지 선정된 신춘문에 당선 작가들의 성비(性比)를 정리한 표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향, 동아(중, 단편), 서울, 조선, 중앙, 한국, 세계 문화일보를 중심으로 10년간 발표된 수상자의 남녀 성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합계
남	3명	3명	3명	5명	4명	5명	4명	5명	5명	2명	39명
여	3명	5명	5명	2명	5명	5명	5명	4명	4명	6명	44명

위의 표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성비는 사실상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는 1990년대 문학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거론되는 여성 작가의 약진(躍進)이나, 당시 신춘문에 심사평에서 빼놓지 않고 거론되었던 여성 응모자의 급증을 떠올릴 때 분명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를 199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에 관한 심사평과 부록으로 수록된 ‘신춘문에 심사경위’와 연결해보면, 당시 문단 내부에서는 ‘여성’ 응모자들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95 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에서는 유독 여성 응모자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 경향신문: 시, 단편소설, 문학평론 등 시조를 제외한 전부문에서 여성이 당선에 영광을 차지. 여성문인들이 전성기를 구가중인 기성문단을 이어받은 것인지. 혹은 ‘돈 안되는 문학’을 남성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문학이 특정한 성(性)의 전유물은 아닐진대. (429면)

- 조선일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중략) 페미니즘 문학의 확산으로, 여성의 독립과 자의식을 주제로 삼은 시도들도 특징의 하나로 손꼽혔다. (438면)
- 매일신문: 올 본지 신춘문예 6개 부문 중 4개 부문을 여성들이 휩쓸었으며 시, 소설은 여성들이 독식했다. 그러나 30대를 포함, 여성들의 신춘문예 공모에서의 지나친 중심권 진입은 문학의 힘의 약화 내지 여성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441면)
- 부산일보: 간과할 수 없는 다른 특징은 여성 응모자 수가 남자에 비해 7대 3, 심지어는 8대 2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남자 응모자수가 눈에 띄게 격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매우 우려했다. ‘우리 사회에서 경험의 폭은 남자가 넓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품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남자가 더 높다’는 통념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불균형은 문학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심사위원들은 말했다. (443면)

위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여성 응모자의 증가를 자못 ‘문단의 위기’로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시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이유로 ‘돈 안 되는 문학’에 대한 남성의 기피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당선자의 증가가 그들의 문학적 역량이 아닌, 남성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식의 서술로 읽힐 소지를 남긴다. 또한 여성은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젠더 이분법을 마주하게 한다. 이는 부산일보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험의 폭은 남자가 넓을 수밖에 없”다는 서술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여성 당선인들이 등장한 것을 “신춘문에 공모에서의 지나친 중심권 진입”이라고 서술한 것이나, 이를 문학의 약화로 연결 짓고 있음도 문제적이다. 1990년대 문학의 중요한 경향성으로 주목되는 여성 담론이 당시에는 ‘여성화 현상’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1993년도 심사평에서 여성 응모자를 중산층 여성들이 기계화로 인해 살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안정 속에서 과거 문학소녀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소설쓰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발언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밖에도 1993년도 신춘문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글에서 이원섭은 당선작으로 선정되기에 크게 지적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모범작들이지만, 등단이 곧 유작이 되어버린 많은 문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작가 집단을 거론한다. 그리고 이에 관해 80년대에 생겨난 “향수내 풍기며 진군해 오는 나이 많은 치마족”이라는 “괴이한 집단”으로 지칭되는 ‘장미부대’에 대해 제법 자세하게 서술을 이어간다.

장미부대는 대체로 왕년의 문학소녀나 시절을 거친 중년의 주부들로서 생활의 안정을 어느 정도 획득한 뒤 못다한 옛 시절의 꿈을 뒤늦게 찾아보려는 가혹한 층들이다. 기계화에 의해 집안일이 줄어들고 핵가족화에 따라 부양가족이 줄어드는 그들로서는 남은 시간 혹은, 이루지 못한 문학적 이상의 허무를 극복할 대상으로써 갯바람, 춤바람, 부동산바람, 도박바람을 택하지 않고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은 케이스인 셈인데 때마침 불기 시작한 신문사, 백화점, 문화 단체들의 평생교육의 가치 아래 유행을 이룬 문화센터의 강좌가 이들을 떠맡고 나섰던 것이다.<sup>20)</sup>

위의 진술에 따르면 ‘장미부대’로 지칭되는 여성 응모자 집단은 80년대

20) 이원섭, 「문학이라는 보물섬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는 없다」, 『1993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예하, 1993, 403-404면.

이미 형성되었다고 파악된다. 이원섭은 “베스트 시인, 베스트 수필, 베스트셀러 소설의 다수가 장미부대가 어떠한 작가적 고뇌 없이 신문 서평란과 광고란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인이 쓴 것이라기보다는 편집자나 편집대행 업체의 운문팀에 의해 만들었다는 것이 편집회사 C씨의 귀뜸”<sup>21)</sup>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또한 문화센터 출신의 중년 여성 지원자들을 잘 판별하고 문단에서도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서술은 여성 응모자들을 향한 분명한 폄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한다.

이는 1990년도 한국일보 당선작인 「늦장마」에 대한 심사평에서 당선자가 ‘가정부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작품은 “월남전쟁, 운동권의 반미주의(反美主義), 외국 농산물 수입정책으로 피폐해져 가는 한국 농촌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은 결혼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가정부주다”<sup>22)</sup>라는 서술이 병행되고 있다. 남성 당선자에 대해서는 성별의 특수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가 기존의 여성 응모자들과 다른 지점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한편, '92 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에 대한 서술에서는 늘어난 여성 응모자들에 대해 “남편과의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려놓곤 여성문제를 다루었다는 착각에선 이제 벗어날 때도 됐다”<sup>23)</sup>고 일갈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 응모자들이 보여준 작품의 실질적인 문학성 결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성 응모자들의 작품에서 그려진 서사에 대한 저평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실제 여성 응모자들의 응모작에 관한 하나하나의 분석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여성 문학을 바라보는 당시 문단의 경향성은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1998년도 심사평 가운데 “공동 당

21) 위의 책, 405면.

22) 『1990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0, 362면.

23) 백종국, 「부록 1: '92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서울신문)」, 『1992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2, 448면.

선작 두 분이 모두 남성작가라는 데 더 흐뭇했다. 그건 여성작가들의 강세가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생각에서이다. (중략) 문단의 전반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남성작가들의 출현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sup>24)</sup>라는 식의 서술을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무엇보다 앞서 인용한 내용 가운데, 부산일보에서 언급한 ‘지나친 불균형은 문학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불균형’은 기존의 한국 문단이 지닌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도에서 1999년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신춘문에 심사위원 명단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

	경향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국	세계	문화
		단편	중편						
90	홍성원 송영	하근찬 김윤식	김우창 홍성원	선정작 없음	선정작 없음	이청준 김치수 김원일	김치수 김현 김원일	최일남 김병익 이문열	미발간
91	이청준 김원일	김윤식 이문열		이호철 최인훈	황순원 서정인	김주영 송영 김치수	박완서 이제하 최인훈	최일남 김병익	미발간
92	김주영 송영	김윤식 이문열	유종호 홍성원	이호철 김원일	황순원 서정인	김치수 이문구 김원일	박완서 이제하 이청준	최일남 오탁번 임현영	미발간
93	조세희 송영	조남현 이문열	김윤식 홍성원	이호철 김원일	김윤식 김원일	이청준 이문구 김주영	박완서 최인훈 이제하	선정작 없음	박완서 박범신 김성동
94	최일남 이청준	조남현 이문열	유종호 이청준	서기원 김병익	김윤식 김주영	김원일 송영 김치수	박완서 이문구 이제하	김윤식 이제하 한승원	이청준 송영
95	이문구 최일남	이문열 조남현		김주영 최인훈	김윤식 김치수	김원일 백낙청 최일남	김원일 이호철 최원식	김윤식 김주영 한승원	김문수 이호철

24) 오세택, 『1998년 신춘문에 당선작품 심사경위(평화방송평화신문): 본질에 대한 치열한 추구 기대』, 『1998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2』, 예하, 1998, 332면.

96	최일남 김병익	조남현 한수산	최인훈 김주영	김화영 윤홍길	김윤식 김치수	김치수 김원우 오정희	이제하 김병익 김원일	김윤식 이제하 김주영	한승원 윤후명
97	최일남 김윤식	조남현 한수산	이문열 권영민	김화영 윤홍길	김윤식 김치수	김치수 이문구 박범신	이제하 이문구 김승옥	김윤식 최일남 박완서	김주영 한승원
98	최일남 김윤식	박완서 박범신		김화영 현길언	김화영 김원우	김치수 박범신 이문구	김윤식 윤후명 최원식	한승원 김원일 권영민	김병익 이문구
99	김주영 신상용	박완서 박범신	도정일 이문열	선정작 없음	김치수 김원우	김주영 이문구 김치수	김윤식 김승옥 김주연	유종호 김원일	김주영 윤후명

위의 표를 통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심사위원 가운데 여성이 박완서와 오정희, 단 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불균형’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90년, 95년, 97년에는 여성 심사위원이 전무하고, 박완서와 오정희가 동시에 심사를 진행한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sup>25)</sup>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여성 평론가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단에서 권위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 비평가의 부재를 증명한다. 이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90년대 여성 비평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 비평 담론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성 작가에 대한 평가가 오롯이 남성 작가와 비평가의 관점 아래 재단되고 평가되어 왔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춘문예 당선작 속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서사가 지닌 한계가 어찌면 남성 비평에 의해 재단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사실 다수의 당선작을 읽어보면 여성 작가들의 경우에도 여성을 대상화하는 작품이 발견되며, 여성의 문제가 주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여성의 진보를 오로지 여성

25)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에도 반복된다. 1981년도에서 1983년도까지 중앙일보에서 심사위원으로 강신제가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여성 심사위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 섹슈얼리티에 집중해서 서사화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에 1990년대 신춘문예가 여성에 대한 서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여성작가의 증가를 문제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임원식은 신춘문예가 199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여성작가가 남성작가를 추월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90년대 신춘문예에서는 여성작가의 급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략) 9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신설된 각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여학생이 몰리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설 문예창작교실이 많이 생겨난 것에 영향을 있을 것이다. 이는 21세기에는 여성작가가 더욱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증가는 90년대 당선작이 1인칭 소설, 역사나 사회보다는 사적인 문제에 치우친 소설이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sup>26)</sup>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성작가의 증가는 문단 내부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당선된 백여 명의 신춘문예 당선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그 결과물이 문단에서 의미있게 조명되는 작가들은 대부분 여성 작가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함정임(90년)·한강(94년)·은희경(95년)·전경린(95년)·정지아(96년)·조경란(96년)·하성란(96년)·김숨(97년)·윤성희(99)를 언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남성 당선자의 경우에는 김소진(91년)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주목되는 작가를 손꼽기 어렵다. 이는 당시 여성 작가들이 단순히 ‘여성’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분명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문학에서 ‘여성’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

---

26) 임원식, 앞의 논문, 81면.

근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문학적 특수성을 통해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기성 문단의 보수성

1990년대 신춘문예 공모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필 원고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로의 전환이다. 신춘문예 당선작 모음집에 수록된 ‘신춘문예 현황과 심사경위’ 속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가 바로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1990년도의 경우에는 신춘문예 좌담회를 통해 “워드프로세서 사용으로 인한 잦은 중복출품이 신춘문예 새로운 골칫거리”<sup>27)</sup>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응모자들에 관한 문단의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듬해 동아일보 기자가 작성한 ‘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를 살펴보면 “「이제는 글을 쓰려면 기계의 손을 빌려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설의 경우 기계, 즉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로 쓴 원고가 많아”졌음을 언급하며 예심에서 추려진 10편 모두 “소위 「기계원고」였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8)</sup> 특히 “육필 원고와 기계원고 사이에는 수준차이”가 컸으며, “기계에의 투자는 작가 지망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sup>29)</sup>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불과 일 년 사이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글쓰기에 관한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는 1992년도에도 “상당수가 자필 원고보다는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활자화된 상태”였으며 “소설 부문

27) 「좌담회: 신춘문예를 말하다」, 『신춘문예: 90 신춘문예 당선집』, 1990, 예하, 447면.

28) 송철복, 「91 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 『1991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991, 예하, 446-447면.

29) 위의 글, 447면.

의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은 예외 없이 깨끗하게 인쇄된 것<sup>30)</sup>들이었다는 진술이나, 95년도 심사경위에 제시된 “컴퓨터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젊은 응모자들 중에서 수준작을 발견<sup>31)</sup>했음을 문학적 수확으로 언급하고 있는 서술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1996년도에도 응모작의 90%가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임을 지적하며 ‘육필원고 시대’는 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예심위원들의 경우 육필원고만을 먼저 골라본 뒤 모두 초반 탈락 시켰다고 적고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가 단순히 글쓰기 방식에 나타난 변화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고지에 직접 손으로 작업하던 세대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세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통해 이루어진 프린트된 활자와 그것이 주는 효과는 문학의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전환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와의 연계성이다.

1990년대는 한국 대중문화 내의 새로운 기원으로 손꼽힌다. 이 시기에 이르러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식된 것’이었던 현대적 의미의 대중문화가 드디어 우리 고유의 색깔을 띠기 시작<sup>32)</sup>했음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는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실제로 영상 매체를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의 열풍은 문학에도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95년도 조선일보 심사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모자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향상된 반면에 상상력의 몫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영상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PC의 보급 때문인지, 요즘의 삶의

30) 박해현, 「'92 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 『1992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992, 예하, 453면.

31) 남제일, 「'95 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중앙일보): 시의 퇴조와 산문의 부상」, 『1995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예하, 1995, 440면.

32) 문현선, 「[big story]뉴트로엔 세대별 결핍이 숨어 있다」, 『매겨진 환경』, 2020.01.22.,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3495c>, 접속일: 2023.01.21.

양식의 변화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른바 영상문화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고 적고 있다. 1996년도 당선작에 관한 심사경위에서도 “시나리오적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 대화를 묘사할 때 원고에 전화기를 그려 넣는 등 영상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sup>34)</sup> 많아졌다고 서술된다. 이처럼 90년대 문학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영상세대의 글쓰기이다. 문학과 영화를 결합한 소설들이 이미지로 포착되는 일상 문화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 시기에 비해 “소재가 다양해지고 기법”<sup>35)</sup>이 다채로워졌음은 물론, 컴퓨터 통신의 사용이 급증한 탓인지 ‘통신용’ 대화체가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진 경우도 빈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sup>36)</sup> 실제로 1995년도 조선일보 당선작인 「앵무새의 죽음에 관하여」에는 PC통신에서 오고가는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그들이 창작하는 작품의 형식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그러나 막상 신춘문에 당선작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1990년대 문학의 가치로 주목하고 있는 전위적인 성격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 대중문화와의 접합을 통해 그려진 1990년대 문학이 보여준 다양한 시도가 막상 신춘문에 당선작들에서는 도드라지게 발견되지 않는 까닭이다. 이는 1990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가족의 해체가 거론되는 것과 달리, 실제 당선된 다수의 수상작들이 가족으로 귀환하는 서사를 보여주고 있음과 연결된다. 1990년대는 다양한 문화가 등장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성(性) 개방 풍조 이후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순결 이데올로

33) 김윤식 김치수, 「심사평: 절망의 아픔을 생명으로 승화」, 위의 책, 229면.

34) 『1996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2』, 예하, 1996, 758면.

35) 이문열, 조남현, 「심사평 탐구정신의 결여」, 『1995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예하, 1995, 126면.

36) 손정미, 「조선일보: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옮겨진 무게중심」, 『1995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예하, 1995, 437면.

기의 허위성을 토대로 다양한 성담론이 전개되었다. 문학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과 이중적인 성규범을 문제 삼았고, 이를 성(性)에 관한 보다 노골적인 묘사를 통해 가시화하였다. 이에 관해 1995년도 신춘문에 현황 및 심사경위에서는 70년대생들의 작품에 그려진 대담한 성 묘사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음을 언급하고, 1996년도에도 노골적인 성 묘사가 늘어났다는 서술을 반복한다. 이밖에도 시나리오적 구성은 물론 영상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라는 서술과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표현이 비속해진 경향이 강해졌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그런데 정작 신춘문에 당선작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응모작에서 발견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비속한 표현들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심사위원들의 경향성만이 아니라, 당시 문단의 주류 집단이 지닌 하나의 경향성을 가늠하게 한다.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30대로 구성된 예심 심사위원들과 50대 이상인 본심 심사위원들을 통해 각각 ‘참신하다’와 ‘가볍다’로 엇갈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언급되는 김영하와 은희경의 소설이 최종 당선작이 아닌 예심 통과작으로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김영하는 1995년도 중앙일보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투고하여 최종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후반부의 무게에 비해 전반부의 성애性愛가 너무 가볍고 진한 점이 부담”<sup>37)</sup>이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이후 김영하는 동명의 소설을 계간 <리뷰>에 발표하였고, 다음해에는 문학동네가 신설한 제1회 신인소설상 공모전을 통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선보였다. 해당 작품은 자살을 안내하는 화자의 등장과 죽음을 통해 삶을 낭비한다는 파격적인 설정, 나아가 앞서 언급한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진한 성애’적 표현으로 채워져 있다. 에로티시즘과 나르시시즘, 권태감과 죽음 충동 등의 키워드로 설명되는 해당 소설이 문예지가

37) 김원일 백낙창 최일남, 「심사평 소외지대의 끈끈한 삶의 확인」, 『1995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예하, 1995, 257면.

신설한 제1회 신인상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신춘문예 심사기준과 분명하게 대비된다. 은희경의 경우도 1995년도 경향일보에 「섹스 잠언집」이라는 작품을 투고하였지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한 제목으로 출간된 작품이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제목이 보여주는 도발성을 주목할 수 있다고 본다. 신춘문예를 통한 은희경의 등단은 중편 「이중주」(동아일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인공은 남편과 이혼을 한, 가부장적 지배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은희경 소설 속 여성 인물들과 겹쳐진다. 그러나 은희경 소설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냉소와 위악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단 내부에서 은희경의 문학적 개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작품은 ‘문학동네 제1회 소설공모전’의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새의 선물』이다. 이처럼 김영하와 은희경이 새롭게 신설된 문예지 공모전에서 각각 첫 번째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새로움에 대한 열망은 존재했으나,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기엔 여전히 문단의 주류 집단이 지닌 경직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글쓰기의 경건함은 많이 없어졌다는 지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새로운 세대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새로운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는 과도기에 머물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신춘문예 본심 심사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점에서, 일부 신문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연령을 평균 40대로 낮춰 젊은 감각의 개성 있는 작품, 실험적,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뽑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997년도 「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에서 제시된 “컴퓨터 글쓰기의 대중화”<sup>38)</sup>는 소설과 평론 부문의 응모자를 늘어나게 한 결과로 설명되고 있다.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세대에서 컴퓨터로 글을 쓰는 세대로의 전환, 이는 단순히 매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에 머물지 않음을 다

38) 조운찬, 「부록1 1997 신춘문예 현황 및 심사경위(경향신문): 응모자의 연령층 확대」,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2』, 예하, 1997, 775면.

시금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매체를 통해 구축되는 새로운 양식의 소설이 제기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오늘날 스마트폰의 일반화가 웹소설이라는 장르의 출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웹소설의 폭발적인 소비가 문단 내에 일명 ‘스마트 소설’이나 ‘초단편 소설’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에 워드 프로세서를 통한 글쓰기의 대중화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문학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 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까닭이다.

## 5. 나가며

2000년대를 목전에 둔 1999년도 신춘문예 당선집에서는 신춘문예 제도의 존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록으로 실린 기획평론에서 하재봉은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김정란은 문제를 보완하는 중도적 차원에서의 주장을, 정호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각각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의 글이 모두 기존의 신춘문예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재봉은 문학의 변화를 부르짖으며 “문학 생산자들 스스로의 낡고 권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하는 삶을 문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39)</sup>고 강조한다. 신춘문예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원대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신춘문예 역시 달라진 매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

39) 하재봉, 「밀레니엄 시대의 문학으로 들어가기」,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프레스 21, 1999, 511면.

고 덧붙인다. 이 부분은 오늘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의 연계점을 제공한다. 소위 순문학이라고 분류되는 기성 작가들이 웹소설을 공부하고, 출판사 차원에서 이를 기성 작가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런 면에서 1990년대 신춘문예에 관한 연구는 작품들의 내용적 차원의 분석이 아닌, 그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심사 과정에서 추구된 기성 문단의 요구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한다.

이에 본 논문은 1990년도부터 1999년도에 이르는 신춘문예 당선작과 그에 관한 심사평 및 심사경위 과정에서 언급된 글들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주류 문단이 지닌 하나의 경향성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각각의 당선작에 해당하는 심사평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 문학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 까닭이다.

한편, 신춘문예는 매해 각종 신문사를 통해 신인 작가들을 배출한다. 1990년도에서 1999년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신춘문예 수상 작가들의 수는 백여 명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문단에서 뚜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작가들은 누구인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2000년대를 앞두고 선정된 1999년도 주요 신문사의 수상작가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을 전공한 인물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이는 “대입 논술 시험의 비중이 커지고 일부 대학에서 문학 특기생 제도를 부활하면서 대학 입시가 중고등생들의 글쓰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서술과 “10대 작품 중에는 탄탄한 구성을 갖춘 작품도 있었으나 부모의 요구에 마지못해 쓴 듯한 글도 눈에 띄고” 있다는 지적, 나아가 문예창작학과와의 확산을 연결 지을 수 있다.<sup>40)</sup> 특히 “1988년도부터 광주·전남 지역 신문의 신춘문예

40) 조운찬, 「경향신문: 옹모자의 연령층 확대」,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2』, 예하, 1997, 775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광주대 외에 올해 4년제로 승격된 광주여대와 광주예술대를 비롯해 순천대, 원광대 등에 문예창작학과가 생겼기 때문”<sup>41)</sup>이라는 진술은 소설 쓰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술장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대는 국어국문학과 못지않게 문예창작학과를 전공하는 다수의 응모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비교적 다양한 전공에 포진해있던 1990년대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소설 창작에 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지만, 동시에 문학이 소수 전공자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한다. 이상의 문제는 추후 논의를 위한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41) 박상수, 「전남일보: 리얼리즘 계통의 작품 증가」, 위의 책, 801면.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 『1990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0.  
『1991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1.  
『1992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2.  
『1993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3.  
『1994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4.  
『1995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예하, 1995.  
『1996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예하, 1996.  
『1996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2』, 예하, 1996.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예하, 1997.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2』, 예하, 1997.  
『1998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예하, 1998.  
『1998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2』, 예하, 1998.  
『1999 신춘문예 당선소설작품집』, 프레스21, 1999.

### 2. 논문

- 김영옥, 「90년대 한국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여성 작가 소설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9권, 상허학회, 2002, 93-120면.  
김한식, 「90년대 신춘문예 당선 소설의 경향」, 『현대문학의 경험과 형상: 김한식 평론집』, 새미, 2002, 321-336면.  
임원식, 「1990년대 신춘문예 당선소설의 성향 분석」, 『인문학연구』 제28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1-19면.

### 3. 기사

- 문현선, 「[big story]뉴트로엔 세대별 결핍이 숨어 있다」, 『매거진 한경』, 2020.01.22.

<Abstract>

A Study of the Trends in Korean Literature in  
the 1990s through Shinchun Munye  
- 1990s Shinchun Munye Award winners and critiques on them

Kim, Soryun

This study focuses on currently signified styles of 90s' literature. In detail, by analyzing the prize winned novels in 'Shinchun Munye' from 1990 to 1999 and reviews on them, since Shinchun Munye has been treated as an official gate to become a certified writer in Korean literature circle, it is available not only to appreciate the trends in the 1990s' Korean literatures but also to propose the directions to current literature.

Key words: 1990's, Shinchun Munye, Novel, Review, Innerness, Women's Literature, Word Processor, Generation

투 고 일: 2023년 2월 1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